

## 길 잃은 민주당

### DJ서거 1주기...쇄신·수권정당 모습 사라지고 당권싸움 골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감한 쇄신과 비전 제시로 소수 야당의 한계를 벗어나 정권 창출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그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응전을 거듭했던 '김대중 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창출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0년 만에 보수 진영에 정권을 내준 후 무기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고 과감한 변화와 비전 제시를 통해 정권을 창출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당내 기득권 다툼에만 몰두해왔다는 평가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도 7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은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민심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내부 동력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에 서는 오는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감동의 정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에는 커녕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싸고 이진우 주류 양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류와 비주류, 각 계파 별로 나뉘어 차기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전당대회 틀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내의 원로 및 중진 그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486(40대, 80학번, 60년대 태생) 그룹은 어느새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면서 활력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내의 차기 대권 주자군도 좀처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DJ 서거 1주년을 맞아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대연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등으로 나뉘어진 진보 진영을 고려하면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답답한 현실은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DJ의 정계 은퇴 이후, 지역 정

치권은 구심점을 잃은데 이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등 분열의 후유증을 똑똑히 앓았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DJ 서거 1주년을 계기로 민주당은 과감한 변화에 나서 정권 창출의 희망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10월 전당대회를 '당권 투쟁의 진흥당'에서 벗어나 국민에 희망을 주는 '감동의 정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 경선 방식 등에서의 과감한 변화와 함께 당권 주자들과 중진·원로 그룹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그동안의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도전과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젊은 김대중'의 야성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DJ 서거 1주년을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를, 지역 정치권에는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서울광장 DJ 추모문화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문화제가 17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지민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 살아생전 민주화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겨레 제공〉

##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첫 삽

### 전파연구소·우정사업정보센터 내달 착공...한전 등 8곳 설계 착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 중 전파연구소와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이전기관들의 청사 착공이 본격화된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17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전파연구소가 다음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청사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이전인원 규모로는 한국전력(1425명), 한전KDN(976명)에 이어 세번째(816명)로, 657억8100만원을 들여 4만9544㎡의

부지에 청사(연면적 2만7699㎡)를 신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부지 규모는 당초 규모(5만9167㎡)보다 9623㎡가 축소됐다.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다음달 청사 착공과 함께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파연구소도 다음달 3만4402㎡의 부지에 142명의 인원이 사용할 연면적 1만4696㎡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전파연구소의 부지 규모도 당초 계획(4만5600㎡)에 견줘 1만 1198㎡가 축소됐다. 전파연구소는 대

방송통신 진흥센터(1만㎡)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연구소도 아직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지만 청사 신축 공사와 동시에 부지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이와 함께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연말에 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수로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도 지난 5월 청사 설계 발주에 들어간 만큼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내년 3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혁신도

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과 여수로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 등 16개 기관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곳은 한국전력·전력거래소·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한전 KPS·농업연수원·한국전파진흥원·해양경찰학교 등 8곳이다. 한전·전파연구소·우정사업정보센터·전력거래소·농업연수원·한전KPS·농수산물유통공사·해양경찰학교 등 8곳은 청사설계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와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하반기에 청사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에 대한 이전계획 승인이 지난 5월말 모두 완료됐다"며 "2012년 지방이전 완료를 목표로 부지매입, 청사건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국서 DJ 정신 추모열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DJ 서거 1주기 광주지역 추모위원회가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전관에 설치한 분향소에는 민주화와 민족 화해에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광주 서구 NGO 센터에서는 '광주정신과 새로운 정치 지평 가능성'이란 주제의 공개 토론회도 개최됐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서거 1주기 추모 전야제가 열렸다. 극단 갯벌 단원 15명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퍼포먼스와 씨김국을 펼쳤으며, 전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이 추모 음악회를 통해 '인동초' 등 10여 곡을 연주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서울에서도 이날 오후 6시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문화제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과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연주, 시인 황지우씨의 추모시 낭송, 김 전 대통령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민주당 박지민 원내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서거 당일인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 국립현충원 유물전시관 앞에서 이희호 여사와 유가족은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 박지민 원내대표 등 여야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같은 시각 신안 하의도 생가에서는 식전 행사와 김 전 대통령 생전 모습 방영, 추도사, 분화 및 한화 등의 순으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에서는 28일 교정에서 DJ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최광일기자 cki@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7탄

장경화 상록전시관 분관장 '화이트 큐빅의 종말...'

※ 선착순 100명·무료

20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MUSICAL

Jack the Ripper

동기애매시행(사)발표까지 30% 할인

10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광주전체학원 다국립